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9주일
제36권 46호(다혜) 2016년 10월 16일

[묵사]



<하느님께선 올바른 판단을 내려 주신다.>

끈질긴 과부의 기도가
사악한 재판관을 움직였듯이,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중단 없는 열정적인 기도여야 한다.

과부의 끈질긴 기도가
재판관의 불의와 사악함을
자비로 바꾸어 놓았다.
재판관보다
그 여자의 끈질긴 호소가 이겼기 때문이다.

기도는 길게 하는 기도보다
끈질긴 기도가 중요하다.

하느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신다.
하느님을 기억하는 불의와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악함을
과부의 끈질긴 청원이 이겼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제주 - ●요셉회 4제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수	CLOSED 2:00 ~ 7:00(오후)
목, 금,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연)이용식 베드로, 이순자 레지나, 김윤업 & 장무등 & 김훈규
	(생)제프리 변
주일 학생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이정용 야고보 & 이운조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최근석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율리안나, 연옥영혼, 송순석 미카엘, 김종범, 윤정숙 마리아 미카엘라, 김종준
	(생)박정미 클라라, 손석 스테파노, 김윤종 유스티노, 김행선 율리안나, 최동한, 황윤재 베드로가정, 오창애 안나, 남혜원 스텔라, 남현우 안드레아, 박영희 아가다, 오세천 바오로 & 오현미 도미니카, 김태홍 루카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탈출기(Exodus) 17,8-13

화답송 ○우리 구원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우리구원은 주님이름에 있으니, 하늘과땅을 만드신분이시 다.

○눈을 들어 산을 보노라. 나의 구원 어디서 오리오? 나의 구원 주님께에서 오리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너의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으시리라. 잠들지도 않으시리라.○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너의 그늘, 너의 오른쪽에 계신다. 낮에는 해도, 밤에는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주님은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신다. 그분은 너의 목숨 지켜 주신다. 나거나 들거나 주님은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제 2독서 티모테오 2서(2 Timothy)3,14-4,2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낸다.○

복음 루카 (Luke) 18,1-8

영성체송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주님은 죽음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굶주릴 때 먹여 살리신다.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5. 교회와 민족주의 운동(1876~1945년)

5-3. 국권 회복 운동

그리고 안중근의 세례 신부인 빌렘의 경우에도 조선의 독립에 대하여 일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후일 동료 선교사들의 결정에 따라 프랑스로 추방된 다음에도 상해 임시 정부의 김규식 등을 도와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안성이나 장호원 등 일부 지방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들도 신자들의 독립운동을 이해하고 있었다.

1919년에는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 운동에 서울, 강화, 안성, 수원 그리고 평양, 해주, 대구 등지에서 다수의 신자들이 참여하였다. 서울의 '예수 성심 신학교'와 대구교구 '유스티노 신학교' 학생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몇몇 신학생 들은 퇴학을 당했으며, 그 해에 있을 예정이던 서품식이 취소되었다. 또한 안성에서는 천주교 신자들이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였으며, 그곳의 공베르(Gombert, 孔安國, 1875~1950년) 본당신부도 일본 경찰에 쫓기는 주민들을 성당에 수용하여 보호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에서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신자들이 속출하였다.

3·1운동이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하자, 적극적인 무장 항쟁을 위한 노력들이 다시 전개되었다. 특히 만주의 간도 지방에서는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조직되고 있었다. 이때 이곳에서 천주교 신자들이 주체가 되어 '의민단(義民團)'이라는 독립군 단체를 조직하였다. 방우룡(方雨龍)의 지휘를 받으며 한반도 수복 작전을 주장하는 매우 강경한 노선을 견지하던 의민단은 무장 규모와 병력 수에서 간도 지방의 독립군 단체 중에서 매우 유력한 존재였다. 의민단은 1920년 10월 김좌진(金佐鎭) 부대 등과 연합하여 청산리 전투에도 함께 참여한다. 방우룡과 의민단은 그 후 상해 임시 정부 산하의 무장 세력으로 편입되어 활동을 계속한다.

3·1운동 이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조직되었다. 여기에 안공근(安恭根), 곽연성(郭然盛)과 같은 신자들이 적극 활동하고 있었고, 은율의 윤예원(尹禮源) 신부는 임시 정부의 국내 조직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또한 안학만(安學滿) 신부는 만주의 독립군 단체에 직접 가담하여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속>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97	197	231
봉헌	254	254	254
성체	289	289	289
파견	240	240	238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오늘 독서와 복음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여러 가르침을 독상해 볼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잘 드러납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장정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두 팔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하였다는 이야기에서 '승리는 싸우는 이들이 얻어낸 결과라기보다는 기도의 결과요, 하느님의 선물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이방민족과의 전투도 그 승리 여부는 전략이나 군마 등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네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루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앞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 바로 이어서 '한밤중에 친구에게 빵 세 개를 꾸어달라는 벗의 끈질긴 간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루카 11장) 이미 한 번 등장했던 가르침입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하는 까닭은, 그것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 번 더 반복하여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그만큼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려는 뜻이 있을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 앞에는 들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데, 하물며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의 간청을 얼마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면서 하느님께 무언가를 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즉시 들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체험으로 압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청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실상 하느님께서 보실 때에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 것처럼 보일 뿐, 오히려 해롭거나 덜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다른 때'가 더 우리에게 적절한 때이거나, 혹은 당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간청케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가 좀 더 정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렇게 여러 차례 간청하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가난함과 보잘것없음, 하느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는 단련의 뜻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끊임없이 간청하는 우리 기도의 최종 단계는 겹세마니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어야 함을 훗날 당신 몸소 보여주십니다.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당장 들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더 겸손되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예수님을 따라 결국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정순택 베드로 주교 / 서울대교구 보좌주교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정인옥 아오스딩
제2독서자	정진옥 노엘	이순자 비비안나	강혜원 안네스
제물봉헌자			토동 2,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니타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묵주기도 성월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묵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달로,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전교주일 2차헌금 : 10월16일(15일 토요미사 포함)
오늘(10월15/16 주일)은 '전교 주일'로 전세계 선교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전교주일 특별 헌금은 '교황청'에 보내져 전 세계 선교지역의 교회를 돕는 데 쓰입니다. 적극적인 봉헌을 바랍니다.

◆ 무료독감 예방주사 안내

- 일시 : 오늘 주일(16일)
오전7시30분, 11시 미사 후
- 장소 : 야외 천교장 또는 강당
- 임신부, 허약자, 당뇨환자, 단백질 알러지, 감기나 열이 있으신 분은 접종을 피해주십시오.
- 수량이 한정 되어 있어 연장자 분들부터 접종해 드립니다.

◆ UYKC 가톨릭 남가주 한인 청년 연합회 성경퀴즈대회

- 날짜: 10월 22일 토요일
- 장소: 성 프란치스코 성당
- 시간: 6시 합동미사 이후

◆ 주일 낮미사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모집

성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 모집부문: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남성분들 파트 대환영합니다)
- 문의: 조정석 수산나 ☎ (310) 968-8171

◆ 요셉회 10월 정기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6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강당
- 문의 : 정기는 비오 ☎ (310) 780-2789

☺ 서로 인사 합니다. ☺

부르심은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속의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오늘도 부르십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16일: * 토서2반 : 북어국(\$3)
* 주일학교 : 칠리 치즈 떡 (9학년)
- 10월23일: * 토동1반 : 카레라이스(\$3)
* 주일학교 : 맛볼 샌드위치 (7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국세찬 금동군 김기정 김병조 김옥찬 김 옥 김원호 김윤진 김일선 김찬구 김현숙 김형순 남명자 노혜숙 민성원 박영희 박운모 박정자 배태임 성낙호 송기철 안재만 안태갑 윤선희 이근태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일길 이재용 이정분 이종선 이종필 정경자 정규숙 정순석 정훈모 조준제 주용순 차병용 최미열 최의수 현석주 황철수	합계:\$ 4,220
주일미사헌금 :\$2,161		
성전헌금	국세찬 금동군 김기정 김병조 김윤진 김찬구 김현숙 남명자 노혜숙 박정자 성낙호 안재만 안태갑 윤선희 이상석 이영희 이은록 이일길 이정분 정경자 정규숙 정순석 정훈모 조준제 주용순 차병용 최미열	합계 : \$1,730

남가주 소식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주관 2016 성장 세미나

- 일시 : 10월 28일(금) 오후 4시-30일(주일)오후 5시2박3일
- 장소: 아씨시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
1519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 (818)365-1071
- 강사 : 김태광 아우구스티노(팔로티회)
- 참가비 : \$100
- 참가자격 : 전신자
- 준비물 : 성경,묵주,필기도구, 세면도구,미사봉헌금
- 문의 : 각본당 기도회장 및
봉사회 교육부장(714)345-4791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K.C.R.M.) ☎ (714) 343-4771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 일시 : 2016년 10월18일(화) -21(금)저녁 6시30~10시
- 강사 : 류 수영 아브라함 신부(예수성심 전교 수녀회)
- 참가비 : \$30
- 장소 : 성김대건 안드레아성당
4750 Challen Av.
Reverside, CA 92503
- 문의 : 성당사무실☎ (951) 352-8500,(909)767-8808

◆KCBC 미주 카톨릭방송 설립 20주년 찬양의 밤

- 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저녁7시
- 장소 : 성 토마스 성당 (St. Thomas Korean Catholic Center)
- 문의전화: 213 256 5708 / 카카오톡 아이디: kcbcus
- *** KCBC 미주 가톨릭에 새로운 엔지니어로 봉사해주실 분과 사무일을 봉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
- 문의 :PD신은경 베로니카 ☎ (231)256-5708

소공동체 10 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리틸다 713-4926	신현화 헬레나 10/5 (수)12시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패트릭 10/15(토)오후6시30분성당장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10/21(금)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김충섭 마틴 10/8(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홍광선 요셉 10/8(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방미숙 마리아 10/18(화)오전10시30분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남구역 모임 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남구역 모임 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남구역 모임 10/30(일)오후12시30분(공원)
토런스 북 정병옥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권 세실리아 10/17(월)오후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숙자 수산나 10/15(토) 오후6시30분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10/7(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윤성진 안드레아 10/15(토) 오후6시
	3	신혜정 토사 213-369-0687	장원철 안드레아 10/7(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10/11(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어서 와! 술은 처음이지?

아담한 체구의 평범한 여고생이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3차례, 소주 3병은 마셔요.” 최근 들어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과 주먹다짐을 하고 자해까지 하게 되자 치료를 결심하게 되었다. 청소년 음주는 더 이상 특별한 비행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5%이고 월 1회 이상 술을 마시는 청소년도 25%나 됩니다. 아이들이 술을 마셔야 얼마나 마시겠느냐며 흉내나 조금 내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청소년들은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십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3~4명 이상 마셔도 기분이 조금 좋아질 뿐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20대 초반까지 성장합니다. 특히 이성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은 마지막에 자리 잡습니다. 이 시기에 술을 마시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술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본래의 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면 졸음, 두통, 구역을 유발해서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뇌는 아직 계기판도 브레이크도 갖지 못했습니다. 하여 술에 취했을 때 더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청소년 음주로 벌어지는 폭력 사건이 한 해 4천 건이나 되고,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아예 인격 자체가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기에 술에 노출되면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5배 정도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너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에서는 며칠간 폭음하는 장면이 낭만으로 묘사되고 주류 광고에는 청소년들이 모델링하기 쉬운 유명인들이 등장합니다. 맥주는 시원하고, 소주는 순해져서 누구나 즐길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메스미디어는 술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유쾌한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조절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극히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하신 후 악마의 유혹(루카 4,1-13)을 받으십니다. 악마는 주님께 재물과 권세와 영광을 약속하며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외면하고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자제력을 상실하고 순간의 만족만 추구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입니다. 중독이 그렇고 술이 그렇습니다. 사실 중독자가 된 이후 치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편이 훨씬 쉽고 효율적입니다.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음주 통제 정책 강도는 22위에 불과합니다. 선진국들은 술을 흥청망청 즐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조심하고 경계하며 향유하는 문화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청소년들에게 하신 충고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아름답고 진실하고 선하게 만

들려면 시끄러워야 합니다. 그 의미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기존 문화와 시대 조류에 도전하고 맞서라는 것입니다. 술과 담배를 조금 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문화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도 시끄럽게 만드는 것의 하나입니다.”

◆하종은 테오도시오 /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치료센터장

[이게 궁금했어요]

3월이 요셉성월인 것은 알면서도 세계 교회와 한국교회의 수호성인이 요셉 성인인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양부, 성모 마리아의 남편이신 요셉성인을 알고 싶습니다.

☞ 성경은 요셉 성인에 대해서 말을 아깁니다. 예수님의 탄생사가 기록된 마태오와 루카 복음서를 제외하면 요셉 성인의 이야기는 전무하지요. 요셉의 역할이 강조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마리아의 동정과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에 관한 교리에서 빚어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과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만 부여된 칭호인 까닭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엄청난 사건 안에서 요셉이 맡았던 막중한 사명을 은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부’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통상, 양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예수님과 요셉 성인의 부자 관계를 완전히 나타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 성인이 육체적 낳음에서는 양부이지만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니까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요셉 성인은 육체의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혼인의 결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며 성모님의 남편이다”라고 밝힌 이유입니다.

◆가톨릭 부산 주보 / 소곤소곤

[교리 상식]

다른 그리스도교 교파에도 성체가 있나요?

☞ 동방 정교회는 성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는 확고한 믿음, 곧 성찬례를 통해 실체 변화를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체 축성용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데 반해, 동방 정교회에서는 누룩을 넣은 빵을 사용한다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개신교 교파들은 성체성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성공회의 경우 미사 형식과 용어가 가톨릭 교회와 매우 비슷하지만 성체의 실체 변화를 믿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체 교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 / 한국천주교주교회

사랑을 외친 호세아 예언자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결혼하도록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 짓을 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스라엘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였고, 호세아는 이 우상 숭배를 마치 간음과 같은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하느님은 디블라임의 딸 고메르를 아내로 맞아들여 자녀들을 낳은 호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호세아서 1,1-9

호세아는 하느님의 말씀에 모두 순종하였고, 그의 부인과의 사이에서 세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부인은 부정을 저지르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는 쓰라린 아픔과 특히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인생의 고통을 겪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빠져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린다면 그 남편의 고통은 짐작도 못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부와 눈이 맞아 놀아난 아내를 찾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고, 또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호세아서 3,1-5

호세아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체험을 통해 오히려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토속 종교인 바알신앙의 유혹에 빠져,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간 그의 부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민의 정을 버리지 못한다고 호세아는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에도 하느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예언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호세아서 11,8-11

호세아 예언자는 BC 8세기 중엽부터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약했습니다. 호세아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칠 것을 권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심판과 징벌에 대한 많은 예언을 했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개인적인 고뇌와 불행한 가정생활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적 사랑의 강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을 돌리고 마구 ()짓을 하기 때문이다.

”(호세 1,2)

나는 타오르는 내 ()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이다. 나는 네 가운데에 있는 ‘거룩한 이’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호세 11,9)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성인말씀

목주기도는 인간에게 빛을 주고 길을 안내하며 하느님 은총에 흠뻑 젖게 합니다.

목주기도의 힘은 대단히 크고 그 결실은 풍부합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그래도 괜찮아

고마우면 고맙다 말하세요.
미안하면 미안하다 말하세요.
외로우면 외롭다 말하세요.
힘들면 힘들다 말하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세요.
감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삭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홀로 견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의 아들조차 깊고 고독한 밤에는
함께 깨어 있어달라고 하셨는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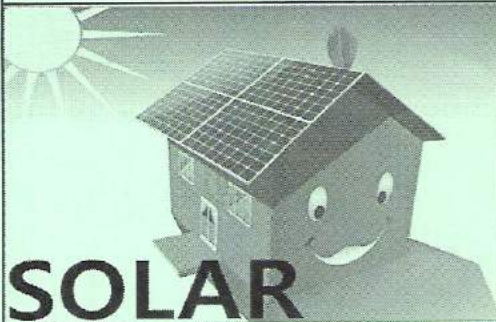
-이영 아네스-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몬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철 아오스딩 310-321-8600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겐마-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푸르덴셜 Tel. 310-755-9837

플라자 약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가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영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한스전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융자 / 채융자 / 홈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 (213)393-5572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리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